

마임 인생 반백년



유진규 마임이스트가 자신의 마임인생 50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오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사진은 포스터 일부.

예술의 전당 제공

유진규 마임이스트 50년 기념 공연 ‘빈손’ 등 주요 레퍼토리 해설·감상 22·23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한국 마임 역사의 산증인 유진규 마임이스트가 자신의 마임 인생 50년을 기념하는 공

연을 오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첫날 그의 대표작 ‘빈손’을 시작으로 두 번째 날에는 그동안의 공연 작품 중 주요 레퍼토리를 모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72년 첫 공연부터 몸과 한지와 그림자가 어우러져 만드는 생김과 사라짐의 이미지를 담아낸 ‘한지’, 2021년 코로나 시대를 그려내는 작품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 시대별 유진규 작품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유진규는 지난 1972년 한 소극장에서 국

내 첫 마임 드라마 ‘첫 야행, 억울한 도둑’을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그는 오직 마임 배우로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1989년부터는 한국 마임 발전을 위해 ‘한국마임페스티벌’을 춘천으로 가져와 ‘춘천마임축제’로 발전시켜 세계 3대 마임축제로 성장시켰다. 관람료 3~5만 원, 예매 문의 1544-1555. 송현숙 기자

지친 일상에 심포...조선왕릉 숲길 걸어볼까

궁능유적본부, 16일부터 11곳 개방

조선왕릉 숲길 11곳이 봄철 개방에 들어간다.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리 동구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11곳을 개방해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동구릉과 사릉, 태릉과 강릉에서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숲길 산책과 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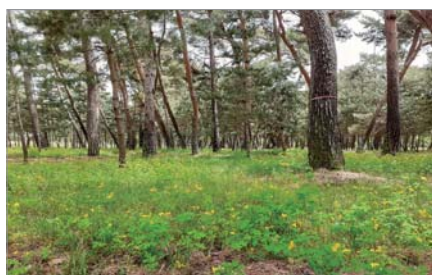
올해 봄철에 정비해 처음으로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파주 삼릉 ‘작은 연못’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노송(老松)’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6월 1일부터 개방)로 총 3곳이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심을 선물해 줄 다양한 휴게공간들도 개방한다. 능침 일원 숲 속에 그늘막과 도서가 비치된 서울 태릉



태릉 그늘집(왼쪽 사진)과 숲길.

과 강릉 ‘어린이 마당’, 서울시 내 유일한 오리나무 생태보존지역인 서울 현릉과 인릉 ‘오리나무 숲길과 쉼터’, 조선왕릉 전통 들꽃을 만끽할 수 있는 화성 용릉과 건릉 ‘들꽃마당’, 소나무 숲 속 다채로운 들꽃이 가득한 쉼터인 남양주 사릉 ‘초화원 쉼터’, 남한강 여주보가 한눈에 보이는 여주 영릉과 영릉 ‘두릅길 쉼터’에서 천연 향균제인 피톤치드로 산림욕을 즐기며 몸과 마음의 면역력



궁능유적본부 제공

을 키울 수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숲길 내 일방통행하기’를 비롯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꼭 쓰기’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송현숙 기자

세종대왕 탄신 624돌 기념 여주 영릉서 15일 승모제전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영릉(英陵)에서 세종대왕 탄신 624돌을 기념하는 승모제전(崇慕祭典)을 봉행한다.

승모제전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양력 5월 15일)을 기리는 행사다.

승모제향은 초헌관(初獻官·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의 분향과 헌작, 축관의 축문 낭독, 문화재청장의 대통령 명의 화환 헌화와 분향, 궁중무용(봉래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승모제전이 거행되는 15일에는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뜻으로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효종대왕 영릉(寧陵)을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송현숙 기자